



전주대 일자리센터, 기업 맞춤형 취업캠프 진행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10월 28~29일 이틀간 군산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 청년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공기업&대기업 맞춤형 취업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캠프는 NCS에 기반한 공기업 및 대기업 채용 트렌드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취업 대비 실무교육을 통한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 및 취업역량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1일 차에는 기업들의 채용 경향을 살펴보고 기업에 대해 분석하는 방법을 익혀 취업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어 본인의 인성과 역량 희망하는 직무 중심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익히고 1:1 자기소개서 컨설팅도 이뤄졌다.

2일 차에는 면접 심화 교육을 시행해 면접 프로세스, 면접 자세, 1분 스피치 등을 익히고, 모의면접 기회도 제공됐다. 이상행 대학일자리센터장은 "취업캠프가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적극적인 취업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돼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장년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대, 21회 동문 발전기금 300만원 전달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준) 21회 동창회가 대학발전기금으로 3백만원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9일 21회 동문 30명은 졸업 40주년을 기념해 대학을 찾아 서현석 기획처장에게 십시일반 모은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이들은 이날 발전기금 기탁식을 갖고, 변화된 대학 캠퍼스를 둘러보며 재학시절을 추억하고 회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21회 동창회 이상덕 회장(전라북도학생회연합회 원장)은 "모교의 발전과 후배들의 학업을 위해 동문들이 뜻을 모아 발전기금을 기부했다"며 "내년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서현석 기획처장은 "21회 동문들이 모교에 느끼는 애정과 관심이 감사드리며, 대학 발전과 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전주교대 발전지원재단은 교직원 동문 등의 기부행렬로 박병준 총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약 9,600만원의 발전기금이 모였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보육 기업, 발전기금 400만원 기탁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 창업 기업이 후배 창업가 양성에 목적을 둔 '창업 릴레이 기부'를 통해 발전기금 4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전주대와 함께 창업지원 행사를 운영했던 창업기업 지피에스(GPS) 김세웅 대표가 후배 창업가들을 위한 발전기금을 기부한 것.

지피에스(GPS) 대표는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과 창업행사를 같이하면서 창업기업들의 열정과 절박함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며 "전주대 창업지원단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창업 생태계 조성에 자자한 보탬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진배 총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바쁜 상황 속에서 후배 창업가들을 위해 어려운 선택을 해준데 대해 감사드립니다"며 "이 발전기금은 교내 창업 생태계 조성은 물론 타 창업기업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임실군, 2023년 총무계획 수립 관련 실무자 회의

임실군이 지난 28일 군청 회의실에서 총무계획 담당자와 군부대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총무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23년 총무계획 작성에 따른 순기준수 및 작성 시 주의사항 전달과 더불어 상호 의견 등을 교환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총무계획간 연계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부서별 총무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부서와 유관기관간 상호 검토하는 등 2023년도에는 보다 내실 있는 총무계획에 주안점을 두고 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건의 및 개선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도 총무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한옥마을 전국 시낭송경연대회 개최

대상-이병숙 · 금상-김성현 · 은상-황주현씨

시낭송과 시문학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공연단체인 (화)한벽투사들(대표 강민서)은 올해 전북 지역문화 예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국립전주박물관 대강당에서 '제3회 전주한옥마을 전국시낭송경연대회' (운영위원장 김도영)를 열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느정도 진정되면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한 채,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단계로 실시된 이번 경연은 전국의 많은 시낭송가들이 참여했다.

공정한 심사로 인해 호평을 받고 있는 본 대회는 전국시낭송대회에서 수상경력이 풍부한 100여명의 기라성같은 시낭송가들이 응모했고, 이중 예심을 통해 33명을 선발해 본선대회를 치렀다.

예선의 대상은 '강서 고분벽화' (이인석 시)를 낭송한 이병숙(56, 경기도 화성)씨가 선정됐다.

그의 금상은 김성현(58, 군산)씨, 은상에 황주현(57, 경기도 오산)씨, 동상에 노기정·손성호·우영식·이명순·조영옥씨 등 5명이 수상했다.

이들 중 대상, 금상, 은상 수여자는 (화)한벽투사들이 수여한 시상금과 시낭송가 인증서까지 아울러 수상했고, 특히 수상자인 이병숙씨는 향후 전주한옥마을 시(詩)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영예를 얻게 됐다.

이번 경연대회를 주최한 강민서 대표(전주대학교 평



생교육원 시낭송자격을 전임교수)는 "코로나19 사태를 벗어날고 있는 요즘 국민들에게 마음의 울림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은 예술상 그 중에서도 시 낭송이 으뜸"이라며 "전주한옥마을의 인지도 상승으로 인해 대회가 진행될수록 전국 최고의 시낭송경연대회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분위기를 잘 활용해 본 대회를 전주의 큰 축제이자 관광산업과 연계한 문화콘텐츠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경연은 향후 유튜브 '한벽투사들'로 중개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 서영임 대학원생, 전북학 신진연구자 학술상 수상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BK21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인 서영임 박사과정생이 전북학 신진연구자 학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는 전북 지역 문화와 역사에 관한 우수 연구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이에 서영임 대학원생은 '전주한옥마을 전통문화관광에서의 진정성'이라는 연구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에 따르면 이 연구는 관광 만족도와 장소 애착도뿐 아니라 도시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관광 욕구 중 하나인 진정성이 만들어지는 매커니즘을 전주한옥마을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관광의 이해 관계자들이 진정성을 만들어 내고, 이를 둘러싼 관광객의 해석과 지지체, 문화기획자, 문화관광해설사, 비발발 명인 간의 타협을 통한 진정성 의미가 재구성되는 과정을 연구했다.

한편 이번 연구 논문은 앞으로 발간될 예정인 '전북학연



구' 7집에 수록될 예정이다.

서 대학원생은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4단계 BK21 '문화·문명의 연구와 활용을 통한 인류 지역위 기극복 교육연구단(Expert-RACC, 단장 임경택 교수)'의 장학 지원을 받으며, 지역사회 현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에 힘쓰고 있다.

서영임 대학원생은 "이번 수상을 통해 앞으로도 전북 지역의 문화관광과 지역사회 위기극복을 위한 연구에 학문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북은행, '제10회 아름다운 동행 희망풍차 나눔 걷기 캠페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와 공동으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3층 강당에서 '제10회 아름다운 동행 희망풍차 나눔 걷기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ESG경영 실천과 기부 참여를 통한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범죄 피해자 및 위기가정 긴급지원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후원금 1000만원과 전북은행 임직원 참가비 400만원 등 총 14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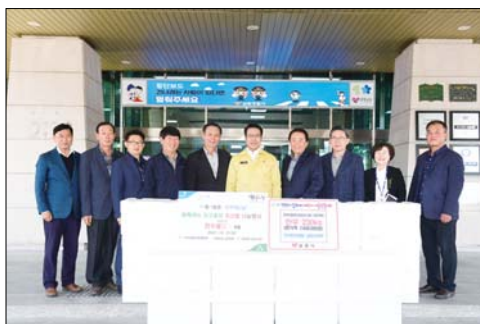
이 날 전달식에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이선홍 회장, 전북은행 김영석 사회공헌부장, 적십자봉사원 및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또 아름다운 동행 희망풍차 나눔 걷기에는 일반인 및 학생, 전북은행 임직원 등 총 1400여명이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개별적으로 집주변 공원, 천변 등



원하는 장소에서 나눔과 환경보호를 접목한 나눔 플로깅(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진행했다.

전북은행 김영석 사회공헌부장은 "도민 누구나 걸기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환경도 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한우협 남원지부, 어려운 이웃에 한우불고기 전달

남원시는 지난달 31일, 전국한우협회 남원지부(지부장 신춘호)가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740만원 상당의 한우불고기 230kg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으며, 이날 전달된 한우는 탈북민, 독거노인, 보호이동, 저소득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등 총 2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신춘호 지부장은 "11월 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로 한우협회와 축협이 연계하여 공동으로 성금 모금 계획을 수립 및 진행하여 자체적 기부행사를 추진, 주변에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불우이웃에게 한우소고기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최근 물가 폭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더욱 어렵고 힘든 한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여성경제인협 전북지회, 사회적 약자 후원금 전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회장 박숙영)는 전라북도 내 사회적 약자 공동현체제를 통해 선정된 후원인 집에서 200만원의 후원금을 지난 31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숙영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장과 9대 임원진을 비롯해 전북경찰청과 덕진경찰서 담당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진행됐다.

박숙영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장은 "도내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성 경제인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200여개의 여성기업으로 이뤄졌으며,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해 모인 경제단체로 여성 경제인의 역량과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비전대 치위생과, LINC 3.0 성과공유 간담회

전주비전대학교 치위생과는 지난달 31일 2022년 LINC 3.0 사업 산학연관 성과공유 간담회 및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치위생과는 2022년 LINC 3.0 사업 참여효과로, '치과디지털기술반 추진 경과 공유', '치과디지털기술반 ICC특화분야 맞춤형 교육에 대한 추진 경과 및 성과 공유'와 LINC 3.0 사업 참여학생의 성과(캡스톤디자인, 창업동아리, 현장실습학기제)를 발표하고 산학연 동반 성장과 변화하는 치과의료산업을 선도할 치과디지털기술반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치위생과 주관, 참여 산업체 및 유관기관, LINC 3.0 참여 학생들과의 소통의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한편 이번 포럼 참여산업체로 전주치과의사회(회장 이화준), 전주치과위생사회(회장 문선진), 라인치과(원장 김재근), 미소아름치과(원장 김진선), 사람사람치과(원장 최상진), 프라임치과(원장 권영훈), 주식회사 에나멜(대표 강정희)에서는 치위생과 '치과디지털기술반' LINC 3.0 참여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장학증서도 수여했다.

김미정 교수는 "산학연협력을 위한 LINC 3.0 사업 참여 산업체 및 지역 산업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LINC 3.0 참여 학생의 우수한 교과 및 비교역량을 공유함으로써 발전하고 있는 치과의료산업에 이끔어 갈 우수한 용·복합 인재 양성 및 지속 가능한 치위생과 '치과디지털기술반'의 성과 창출과 방향성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덕진신협, 지역아동센터에 생필품 나눔 펼쳐

전주덕진신협(이사장 임문옥)은 바다별 지역 아동센터에 전기장판, 이불, 라면, 화장지 등 난방용품과 생필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 활동을 지난달 28일 펼쳤다.

전주덕진신협의 나눔활동은 '온세상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전주덕진신협 임문옥이사장은 "온세상 나눔 캠페인은 지역사회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신협의 가치를 잘 나타낸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라고 전했다.

전주덕진신협은 1972년 설립돼 현재 덕진구 덕진동, 송천동, 팔복동에 소재한 비영리 금융기관으로 매년 소상공인지원 어부비블랜드, 장학사업, 어부비블랜드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기업과 소외계층에 믿음과 나눔의 정신을 경영이념으로 지역사회 내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대, 진안군 일자리센터와 대학생 창업캠프 진행

전주대학교 창업교육센터(김기정 센터장)는 지난달 27일 창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전북권 대학생과 청년 30명을 대상으로 진안군 창업 우수 농가 방문 및 스타트업 창업 전 과정 체험을 위한 창업캠프(진안)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주대, 전북대, 원광대, 우석대, 한국농수산대학교와 창업전문 교육 기업인 언더독스와 함께 한 이번 행사는 진안군 일자리센터와 협업체 진안군의 다양한 자원과 특산품을 활용한 아이디어를 도내 대학생들과 지역 청년들이 함께 탐색하고 배워 창업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프는 진안 지역의 청년 창업 우수 농가 방문과 특산품 탐색을 통한 창업 역량 강화 워크숍을 주제로 진행, 토마토, 딸기 스마트팜 농장 방문, 진안군의 성공 청년 창업가인 전은성 대표 특강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아이디어이션, 창업가 관점 도출, 경쟁사 분석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전주대 LINC 3.0 창업동아리 SOV팀의 팀장 김현준 학생(인공지능학과)은 "이번 진안 캠프를 통해 그동안 몰랐던 진안군의 다양한 자원들과 창업 관련 지원사업들을 알게 됐다"며 "실제로 창업에 성공한 청년 창업가를 직접 만나 함께 활동하기가 쉽지 않은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